

전국 곳곳은 만해사상으로 '흠뻑'

2013년 만해축전 9월까지 계속 이어져

불교계의 큰 축제 2013 만해축전이 8월 10일~13일 동국대 만해마을과 하늘내린센터 등에서 열린다. '선린(善隣)·상조(相助)'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전은 만해대상 시상식 문예행사 대동제 등은 물론 9월 까지 다양한 주제의 학술포지엄으로 대중들을 찾아갈 것이다.

만해축전의 첫 행사는 8월 11일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만해대상 시상식으로 그 막을 연다. 한용운 스님의 높은 사상과 깊은 정신을 선양하고자 제정

8월 11일 시상식 '하이라이트'

27개 주제 학술대회까지

된 만해대상은 평화 실천 문예 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올해는 실천대상부문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수상한다.

불교사상을 비롯해 문학과 인문사회를 아우르는 학술포지엄도 눈에 띈다. 지난 5월 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서울대에서 주최한 '평화인문학의 영역과 쟁점들'을 시작으로 열린 학술 심포지엄은 9월 28일까지 강원 서울 대구 등 전국에서 열린다.

불교평론, 한국시인협회 등 총 28개 단체가 참여한 학술심포지엄은 총 27개로 나뉘어 진행되며 주제별로 분류하면 문학 17개, 인문사회 7개, 불교 3개 등으로 나누어

날짜	시간	주제	장소	주관
5.07	10:00	평화인문학의 영역과 쟁점들	서울대학교 규장각 세미나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5.17	9:00	박물관, 기억과 창의력을 통한 사회변화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동	한국박물관 협회
5.24	11:00	강원여성문학의 발전방향	강릉 송정동 레미안 컨벤션3층	강원여성문학인회
5.24	14:00	백성의 반역 문학	고려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시사당 문학인협회
6.04	15:00	작고 여성 문인 재조명: 소설가 구혜영 선생의 문학과 인생	문학의집, 서울	한국여성문학인회
6.15	14:00	디지털 시대 문학의 현실과 전망	문학의집, 서울	한국시인협회
6.21	16:00	현대시조의 시대정신	광주광역시 히딩크 호텔	오늘의 시조시인들의
6.22	11:00	성공적인 평생 동계올림픽을 위한 강원예술계의 활동	만해마을 대강당	강원문인협회
7.04	10:00	박인환과 1950년대 문학	한양대학교	근대문학회
7.05	17:00	인문학과 현대시조	대구광역시 팔공 유스호스텔	대구시조시인협회
7.9	13:30	민주사회와 종교	만해NGO교육센터 2층 대교육장	종교 자유정책 연구원
7.10	14:00	한국 민주주의의 내일과 노동교육	서울 경향신문사 13층 회의실	전태일재단
7.20	15:00	어떤 시조가 독자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 추모아트홀 컨벤션 센터	한국시조시인협회
7.23	13:00	문학의 반역 상생	만해마을 대강당	한국문인협회
7.26	10:00	님이 침묵하는 시대의 문학을 말한다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민족문제연구소
8.05	15:00	이 시대의 소설이란 무엇인가?	노근리 평화공원 (충북 영동군)	한국소설가협회
8.09	10:00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와 한국현대문학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정보관	서울대 한국어문학연구소
8.11	13:00	불교문학의 반성과 전망	만해마을 대강당	한국문인협회
8.11	10:00	한국시 100년 무엇이 문제인가?	만해마을 대강당	한국시 100년대회장
8.11	13:00	우리 현대시의 시어 모어와 모국어	만해마을 청소년 수련원 강당	현대시학
8.12	15:00	선, 언어로 읽다	만해마을 대강당	시와세계
8.12	09:00	메이저 문학의 세계적 현실과 비전	만해마을 청소년 수련원 강당	창작자간기회
8.12	13:30	권영민의 문학콘서트①	만해마을 대강당	한국현대문학회
8.13	9:30	권영민의 문학콘서트②	만해마을 대강당	한국현대문학회
8.22	13:00	탈북의 성찰과 북한 이탈주민의 이해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동북아 미사학회연구소
8.24	15:00	세대를 통해 살펴본 현대시조	마산 아리랑 관광호텔 1층	경남시조시인협회
9.06	13:00	명상 불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조계사 불교문화역사관	불교평론
9.28	14:00	우리시대 시조의 위상과 시 정신	신사동 유심사육	유심시조아카데미

진행된다.

특히 9월 6일에는 불교평론이 주최하는 서울 조계사 불교문화역사관에서 '명상 불 어떻게 볼 것인가'는 불교의 명상의 오늘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올해 만해축전은 △현대사상과 만해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와 한국현대문학 △불교문학의 반성과 전망 △선, 언어로 읽다 등이 9월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한국현대문학회가 주최하는 8월 12일~13일

문인협회 강당에서 주최하는 권영민 문학 콘서트는 대중들에게 문학의 기쁨을 전해 줄 것이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학술심포지엄은 만해 스님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21세기기를 이끄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문화예술을 창조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문화 연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남북과 좌우를 초월하는 만해정신을 선양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가치를 창조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한다.

만해 스님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문예행사도 주목할만하다. 올해는 3개의 백일장은 물론 <한국대표시선 100> 출간까지 다양한 문예행사가 열린다. 문예행사는 8월 11일 제15회 전국고교생 백일장을 시작으로 △제11회 남의침묵 서예대전 △만해시작 90년 기념 <한국대표시선 100> 출간 등이 열린다. 8월 13일 열리는 제2회 남의침묵 전국백일장(인제신문사) 등도 대중들에게 문학의 장을 마련해준다.

군민과 함께하는 축전 대동제도 흥겨운 한마당을 마련한다. 다문화가족예술제, 대동축구대회, 생활야구대회, 게이트볼대회, 인제 산악쇼 효소축제 등은 시민들에게 축

청소년 문예백일장·서예대전

지역민 함께하는 대동제도 '눈길'

제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이다. 이밖에도 제 11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은 축제 시작 전인 8월 1일 만해마을 남의 침묵 광장에서 열리며 수상자는 최동호 교수, 박현수 교수가 시와 학술 부문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만해축전은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인 만해 스님의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평화와 겨레사랑의 만해 정신을 선양하고자 기획됐다. 또한 강원도의 수려한 경관과 청정자연, 사람과 문화가 하나가 되는 만해문화를 통해 지역 발전은 물론 문화의 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033)462-2304

정혜숙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개발한 문구류 세트. (사진제공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불교 디자인 세계로 나간다

불교문화사업단, 23일 한국디자인진흥원 MOU 체결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 이하 문화사업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새로운 전통문화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문화사업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오는 7월 23일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다양한 전통문화상품 개발을 통한 세계화 공동 사업에 들어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2008년부터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을 통해 매년 500여 점 이상의 작품을 접수해 수상작을 상품화했으며 다양한 문구류, 사무용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용품을 자체 개발해 왔다.

이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관련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올 해 6월 중국 남보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중국 남보 국제일용소소비품박람회'에 상품들을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상품으로 선정해 전시했다.

또 남보시 'K-DESIGN' 전시판매관에 사람의 꽃살문을 본 따 만든 명함집, 염주 형태의 USB 등 불교문화상품 5점을 비치하고 내년 6월까지 홍보·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K-DESIGN' 관련 전시된 상품들은 서울디자인재단, 삼성전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콘텐츠로서, 전통문화상품으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개발 상품이 유일하다.

정산 스님은 "한국불교는 1,700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성장하며, 건축, 음악, 미술 등 다방면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와 기술을 구축해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1세기의 대중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을 기대한다"고 협약 소감을 전했다.

신종일 기자

"초심 잃지 않고 교구 안정에 최선"

마곡사 주지 후보 원경 스님

조계종 제6교구본사 신임 주지 후보에 원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천안 성불사 주지·사진)이 선출됐다.

마곡사는 7월 18일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선거인단 107명 중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투표는 2차까지 가는 점점으로 진행됐으나 원경 스님은 2차 투표 결과 57표로 최종 선출됐다. 태전 스님은 45표를 얻었다.

신종일 기자

세계여성불자 모임 '샤카디타' 한국지부 설립

7월 17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서 창립식 개최

여성불자들의 국제적인 모임인 샤카디타의 한국지부가 설립됐다.

한국 샤카디타 준비위원회는 7월 17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서에서 '샤카디타 여성불자 국제협회 한국 지부(이하 한국 샤카디타)'의 창립식을 개최했다.

1987년 설립된 샤카디타 인터내셔널은 격년마다 지역을 바꾸어가며 세계여성불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제8차 대회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한국샤카디타 설립은 지난해 6월 샤카디타 전 회장인 카르마 렉세 호소 스님과 현 회장인 크리스티나 장 박사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들이 전국비구니



샤카디타 한국지부가 7월 17일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회 회장인 명우 스님과 조은수 불교여성연구실 소장,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을 만나 샤카디타 한국지부 창립을 논의하면서 본격 진행됐고, 10월 본부로부터 공식 설립허가를 받게 됐다.

샤카디타코리아(Sakyadhita Korea)는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 전 원장과 조은수

불교여성연구실 소장, 박선미 불교여성개발원 5차 108인, 조성자 강원대 법학대학원 교수, 오지연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5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됐다.

한국 샤카디타는 △네트워킹 △교육 △사회활동 등 세 가지 주요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조은수 교수는 "각국의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불자들이 소통하는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데 도울 것이다. 특히 젊은 불자들이 국제행사에 참가해 해외의 젊은이들과 교류하는데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밖에도 한국샤카디타는 젊은 여성들이 영어와 자기 강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도 전념하며,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계 구현'이라는 샤카디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회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나라 기자 oasis1983@hyunbul.com

잇따른 노동자 죽음... 불교계 애도

조계종 노동위, 노량진 수물사고 등 애도 논평

노량진 상수도관 공사장 수물사고와 현대차 아산 공장 비정규직 지회장 자살 등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애도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 이하 노동위)는 7월 18일 논평을 "잇따른 산업 재해에 의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비주도급, 하청, 재하청 얼마 등 저임금 노동자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원청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관리에 소홀하거나 안전의무를 협력사 혹은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노량진 수물 사고도 이런 관행과 밀접한 연관성에서 발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위는 "잇따른 중대 재해와 사망사고를 불식·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하청 노동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원청업체 사업

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정당들은 '산업안전법' 등 관련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 아산 공장 비정규직 노조 지회 사무장 박정식씨가 자택에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된데 대해서도 노동위는 애도문을 발표했다.

노동위는 7월 16일 발표한 애도문에서 "올해 들어 노동자의 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비정규 노동자가 많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규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절망과 분노로 바뀌면서 급기야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된 고인의 죽음이 현대 자본은 커다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추천 도서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김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던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가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미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른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지재만현 큰스님 김수, 법상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카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담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추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